

2019년 12-1호

KIET 경제산업동향

2019. 12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례 >

< 요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용	12
6. 수출입	13
< 부 록 >	
2019년 수출입 평가 및 2020년 전망 [국제무역연구원(2019.11)]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일본 3분기 성장률 전기비 0.1%, 유로존 0.2% 기록

- 미국은 10월 실물지표들이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혼조세를 보이고, 체감지표들도 혼조 양상을 보인 가운데 3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2.1%로 상향
- 일본은 3분기중 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감소 영향으로 전기비 성장률이 0.1%로 하락, 유로권은 역내 최대국들의 플러스 성장으로 0.2% 성장
- 중국은 10월 내수 지표들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도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내·외수 지표들이 부진한 가운데 인민은행은 경기 부양 조치 단행
- 달러화는 지난 11월에 강세를 보인 이후 12월 들어 미국의 대중국 관세 추가 부과 시한(12.15일)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약세가 지속
- 유가는 지난 11월 말에 일시 급락세를 보인 이후, 미국의 3분기 성장률 상향과 OPEC의 감산 규모 확대 결정(12.6일) 등으로 상승세로 전환

□ 국내경기 : 10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4%, 소비·투자 동반 감소

- 10월중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과 건설업에서 전월비 증가세를 보인 반면, 광공업에서 제조업생산이 감소한 영향으로 전월비 2개월 연속 감소
 - 광공업생산은 전자부품 등에서 감소함에 따라 전월비 1.7% 감소하고, 서비스업생산은 숙박·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0.3% 증가

□ 금 용 : 10월 기업대출·가계대출 동반 확대, 12월 초(12.2~12.10일) 금리 하락·원화 약세

- 10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모두 전월보다 더욱 늘어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도 전월보다 증가 규모가 좀 더 확대

○ 국고채(3년) 금리는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와 외국인들의 장기물 위주 국채선물 매수세 유입 등으로 하락

○ 원/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협약의 지연에 대한 우려감과 MSCI 지수 조정에 따른 외국인 주식 매도 및 관련 역송금 수요가 지속되면서 1,900원 돌파

□ 산업별 동향 : 10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감소·서비스업생산 증가

○ 제조업생산은 기타운송장비와 반도체 등에서 상당 폭 증가함에도 전자부품과 자동차 등에서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월비 2.5% 감소

- 제조업ICT에서는 증가, 중공업에서는 감소 전환, 경공업은 감소폭 확대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와 교육, 운수·창고 등 다수 업종에서 감소함에도 보건·사회복지, 정보통신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0.7% 증가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5.3% 증가, 전월비 기준 0.2% 증가

□ 고용 : 10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1.5% 증가

○ 10월 전산업 취업자는 SOC·기타서비스업 등에서 비교적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증가율이 1.5%로 상승

□ 수출입 : 11월 수출 -14.3%, 수입 -13.0%, 무역흑자 34억 달러

○ 지난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4.3% 감소한 441억 달러, 수입은 13.0% 감소한 40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품목별 수출은 13개의 주력 품목 가운데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 전 품목들이 감소한 가운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은 여전히 두 자릿수 감소세가 지속

1. 해외경제

□ 미국 : 10월 실물·체감지표 혼조세, 3분기 성장률 2.1%로 상향

○ 지난 10월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체감지표들도 가계와 기업 간 혼조세 시현. 3분기중 소비 둔화와 투자 감소 등에도 재고투자 확대 영향으로 전기비 성장률이 1.9% → 2.1%로 상향

- 산업생산은 GM 공장의 파업 지속 여파로 자동차 생산의 감소폭이 더욱 확대(-7.2%)되면서 전월비 감소율이 더욱 커진 반면에 소매판매는 자동차·부품(0.5%)과 주유소(1.1%) 판매 등의 증가로 증가세로 전환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는 모습에도 기준치(50)를 여전히 밑돌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지수는 미래 기대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올 6월(124.3) 이후 4개월 만에 최저치
- 제조업 일자리 수는 전월보다 3.6만명 감소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10월(-5.3만명) 이후 최대 폭 감소하고, 실업률도 소폭 상승
- 지난 3분기중 소비 증가세 둔화와 설비투자 감소세 등에도 불구하고 재고투자 확대 영향으로 전기비 성장률이 당초 1.9% → 2.1%로 상향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8	2019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2.9	3.1 (2.7)	2.0 (2.3)	2.1 (2.0)					
산업생산	3.9	-0.5	-0.6	0.4	0.0	-0.1	0.7	-0.3	-0.8
(IT 생산)	6.4	(1.9)	(-0.2)	(3.7)	(1.2)	(1.8)	(1.6)	(0.4)	(0.1)
내구재수주	7.9	0.3	-3.5	2.1	1.8	2.1	0.2	-1.5	0.5
소매판매	4.8	0.3	1.9	1.4	0.4	0.7	0.6	-0.3	0.3
소비자물가	2.4	0.2	0.7	0.4	0.1	0.3	0.1	0.0	0.4
실업률(%)	3.9	3.9	3.6	3.6	3.7	3.7	3.7	3.5	3.6
무역수지(10억US)	-627.7	-156.5	-159.1	-157.4	-53.7	-52.7	-53.5	-51.1	-47.2
ISM 제조업지수 ¹⁾	58.8	55.4	52.2	49.4	51.7	51.2	49.1	47.8	48.3
소비자신뢰지수 ²⁾	130.1	125.8	128.3	132.1	124.3	135.8	134.2	126.3	125.9
경기선행지수 ³⁾	110.1	111.5	111.8	112.0	111.8	112.2	112.0	111.8	111.7

자료 : 미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9월 내수지표 혼조세, 올 3분기 성장률 전기비 0.1%로 하락

- 9월 생산 증가 전환과 수주 감소 지속, 소비 확대 등 내수 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실물경기의 방향성은 여전히 불확실. 3분기중 소비(전기비 0.4%)와 투자(0.9%)가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수출이 감소 전환(0.5% → -0.7%)되면서 전기비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하락(전년동기비 기준 1.3%)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8	2019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국내총생산(GDP)	0.8	0.5	0.4	0.1					
광공업생산	1.0	-2.5	0.7	-0.5	2.0	-3.3	1.3	-1.2	1.7
민간기계수주	5.1	-3.2	7.5	-3.5	-7.8	13.9	-6.6	-2.4	-2.9
소매판매	1.7	-1.3	0.4	3.2	0.4	0.0	-2.3	4.6	7.2
소비자물가	1.0	0.2	0.1	0.1	0.0	0.0	0.1	0.0	0.0
실업률(%)	2.4	2.4	2.4	2.3	2.4	2.3	2.2	2.2	2.4
무역수지(10억엔)	-1,225	-563	-329	-523	-970	588	-252	-146	-125
경기선행지수 ¹⁾	100.0	96.3	94.8	92.6	95.0	93.6	93.7	91.9	92.2

자료 : 일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15년=100.

□ 중국 : 10월 내수지표 둔화, 인민은행 유동성 확대 · 금리 인하 단행

- 지난 10월 생산과 투자,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의 증가세가 재차 둔화되고, 수출도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내·외수 여건의 약세를 반영. 인민은행은 11월 들어 유동성 공급에 이어 역RP금리(7일물)도 2015.10월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으로 인하(2.55% → 2.50%)하면서 경기 부양 조치 단행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18	2019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국내총생산(GDP)	6.6	6.4	6.2	6.0					
산업생산	5.7	6.5	5.6	5.0	6.3	4.8	4.4	5.8	4.7
고정투자(누계기준)	5.9	6.3	5.8	5.4	5.8	5.7	5.5	5.4	5.2
소매판매	8.3	8.3	8.5	7.6	9.8	7.6	7.5	7.8	7.2
소비자물가	2.2	1.8	2.6	2.9	2.7	2.8	2.8	3.0	3.8
수출(달러화기준)	9.2	1.0	-1.0	1.8	-1.3	3.3	-1.0	-3.2	-0.9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9월 실물지표 소폭 증가, 3분기 역대 성장률 전기비 0.2%

- 9월중 역대 생산 및 소비가 전월에 이어 소폭 증가세를 보인 반면, 경기체감지수는 2015.2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 지난 3분기중 독일(0.1%)과 프랑스(0.3%) 등 역대 최대 경제국들의 플러스 성장에 힘입어 0.2% 성장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8	2019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국내총생산(GDP)	1.8	0.4	0.2	0.2						
산업생산	0.9	0.5	-0.6	-0.9	0.8	-1.4	-0.5	0.4	0.1	
소매판매	1.6	0.9	0.6	0.5	-0.3	1.0	-0.5	0.6	0.1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8	1.4	1.4	1.0	1.2	1.3	1.0	1.0	0.8	
무역수지(10억유로)	193.3	53.1	51.8	55.2	18.6	17.7	17.1	19.7	18.3	
경기체감지수 ¹⁾	111.2	106.0	104.1	102.5	105.2	103.3	102.7	103.1	101.7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약세 지속·유가 상승 전환

- 지난 11월에 미·중 무역합의 기대감 등으로 강세를 보인 달러화는 12월 들어 美 정부의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 선언(12.2일), 미국의 대중국 관세 추가 부과 시한(12.15일)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약세
- 유가는 OPEC의 감산 기대감 약화 우려 등으로 11월말에 급락한 이후, 미국의 3분기 성장률 상향과 OPEC의 감산 규모 확대 결정(12.6일) 등으로 재차 상승. OPEC은 2020.3월까지 현 감산 규모를 170만 배럴/일로 확대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19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10일	
엔/달러	110.86	111.42	108.29	107.85	108.78	106.28	108.08	108.03	109.49	108.72	
달러/유로	1.1218	1.1215	1.1169	1.1373	1.1076	1.0982	1.0899	1.1152	1.1018	1.1092	
미 국채 (10년만기)	2.41	2.50	2.12	2.01	2.01	1.50	1.66	1.69	1.78	1.84	
WTI유	60.1	63.9	53.5	58.5	58.6	55.1	54.1	54.2	55.2	59.2	
두바이유	67.6	72.1	63.2	64.8	63.6	59.6	59.9	59.3	62.7	63.7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10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감소 지속, 소비·투자 감소

○ 지난 10월중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과 건설업에서 전월비 증가세를 보인 반면, 광공업에서 제조업생산이 감소하면서 전월비 2개월 연속 감소세

- 광공업생산은 전자부품(전월비 -7.0%)과 자동차(-4.4%) 등에서 감소한 영향으로 전월비 감소세(-1.7%)로 전환되고, 서비스업생산은 숙박·음식점(3.1%)과 정보통신(1.9%)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전월비 0.3% 증가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GDP성장률	3.2	2.7*	1.7* (-0.4*)	2.0* (1.0*)	2.0* (0.4*)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2.8	2.8*	1.9* (0.1*)	2.0* (0.7*)	1.8* (0.2*)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16.5	-2.4*	-17.4* (-9.1*)	-7.0* (3.2*)	-2.6* (0.6*)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7.3	-4.3*	-7.2* (-0.8*)	-3.5* (1.4*)	-3.7* (-6.0*)	-	-	-	-
전산업생산지수	2.5	1.4*	-0.6 (-0.8)	0.4 (0.5)	0.5* (1.1*)	0.7 (1.6)	0.0* (0.2*)	0.5* (-0.4*)	-0.5* (-0.4*)
광공업생산지수	2.4	1.3*	-2.1 (-2.9)	-0.7 (1.4)	-0.8* (1.9*)	0.6 (2.8)	-3.3 (-1.8)	0.4* (2.0*)	-2.5* (-1.7*)
제조업생산지수	2.2	1.2*	-2.1 (-3.0)	-0.8 (1.6)	-0.7* (1.8*)	1.0 (2.8)	-3.3 (-2.0)	0.2* (2.1*)	-2.5* (-1.5*)
서비스업생산지수	1.9	2.1*	1.1 (0.3)	1.4 (0.0)	1.6* (0.8*)	1.5 (1.2)	2.4 (1.1)	1.0* (-1.3*)	0.7* (0.3*)
소매판매액지수	1.9	4.2*	1.7 (1.3)	2.0 (1.0)	2.3* (0.2*)	-0.3 (-0.8)	4.1 (3.9)	3.1* (-2.3*)	2.1* (-0.5*)
설비투자지수	14.1	-3.7*	-19.6 (-5.4)	-8.7 (1.2)	-4.0* (0.8*)	-4.8 (2.2)	-4.0 (0.5)	-1.6* (2.1*)	-4.8* (-0.8*)
건설기성액	10.1	-5.2*	-9.5 (1.8)	-6.4 (-1.8)	-7.8* (-4.3*)	-8.1 (-4.6)	-7.4 (0.9)	-7.9* (-3.2*)	-4.3* (1.7*)
동행종합지수(2015=100)	107.2	109.4*	109.8	110.4	111.1*	110.7	111.1*	111.3*	111.4*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1.1	100.5*	99.4	99.4	99.4*	99.3	99.5*	99.5*	99.4*
선행종합지수(2015=100)	109.3	112.8*	113.8	114.6	115.0*	114.7	114.9*	115.4*	116.0*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1.2	100.2*	99.0	98.9	98.4*	98.4	98.4*	98.5*	98.7*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 소매판매는 비내구재(전월비 1.4%) 판매가 증가한 반면에, 준내구재(-2.8%)와 내구재(-2.3%) 등의 판매가 감소하면서 전월비 0.5% 감소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전월비 3.6%) 투자가 증가한 반면, 기계류(-2.3%) 투자가 감소하면서 5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건설기성액(불변)은 건축(2.6%) 공사 실적이 증가한 데 힘입어 전월비 1.7% 증가
- 동행종합지수는 수입액과 내수출하지수 등이 감소한 반면에, 비농림업 취업자수와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0.1% 상승하고, 선행종합지수도 재고순환지표와 코스피 등이 감소한 데 반해, 기계류 내수출하지수와 건설수주액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0.5% 상승

□ 물가 : 11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6% 하락, 전년동월비 0.2% 상승

- 11월 소비자물가는 식료품·비주류음료(전월비 -2.6%)를 비롯해서 오락·문화(-1.7%), 가정용품·가사서비스(-0.8%), 통신(-0.8%)과 교통(-0.5%) 등에서 하락한 영향으로 전월비 0.6% 하락(전년동월비 0.2%)
- 10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전월비 -4.7%)에서 비교적 큰 폭 하락한 가운데 공산품(-0.1%)에서 소폭 하락하고, 서비스 부문(0.1%)에서도 소폭 상승에 그치면서 전월비 0.2% 하락(전년동월비 -0.6%)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소비자물가	1.9	1.5	0.5 (-0.4)	0.7 (0.4)	0.0 (-0.1)	0.7 (-0.2)	0.6 (-0.3)	0.0 (0.2)	-0.4 (0.4)	0.0 (0.2)	0.2 (-0.6)
근원물가	1.5	1.2	1.1 (0.4)	0.9 (0.3)	0.8 (-0.1)	0.9 (-0.1)	1.0 (-0.2)	0.9 (0.1)	0.6 (0.0)	0.8 (0.2)	0.6 (-0.3)
생산자물가	3.5	1.9	0.3 (-0.5)	0.4 (0.5)	-0.5 (0.4)	0.1 (-0.3)	-0.3 (0.0)	-0.6 (0.2)	-0.8 (0.1)	-0.6 (-0.2)	-
근원물가	3.1	1.6	0.3 (-0.2)	0.3 (0.4)	-0.2 (0.0)	0.1 (-0.2)	-0.1 (0.0)	-0.2 (0.1)	-0.3 (-0.1)	-0.3 (0.0)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10월 기업대출·가계대출 동반 확대

- 10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전월보다 증가세가 모두 확대되면서 전월비 증가폭이 확대
(19.9월 +4.9조원 → 19.10월 +7.5조원, 대기업 +1.1조원, 중소기업 +6.3조원)
 -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들의 적극적인 대출 유치 노력과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자금 수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확대
 - 대기업 대출도 전월비 증가폭이 확대
- CP는 전월과 달리 순상환 규모가 축소
(19.9월 -1.2조원 → 19.10.1~20일 -0.4조원)
- 회사채는 투자수요 지속과 연말 북 클로징을 대비한 선발행 수요 등의 영향으로 순발행 규모가 확대
(19.9월 +0.6조원 → 19.10월 +3.6조원)
-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전월보다 증가폭이 약간 더 확대
(19.9월 +0.1조원 → 19.10월 +0.5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7		2018		2019			19.10월말 잔액	
	연중	10월	연중	10월	연중	8월	9월		10월
■ 은행 원화대출	38.1	5.6	42.7	4.6	45.2	3.5	4.9	7.5	869.2
(대 기업)	-3.5	1.9	5.0	1.8	-0.9	-1.9	0.1	1.1	153.7
(중소기업)	41.6	3.7	37.6	2.7	46.1	5.4	4.8	6.3	715.5
<개인사업자>	27.8	2.3	25.0	2.0	21.3	2.7	2.4	2.8	335.1
■ 회사채 순발행	-3.5	-2.2	5.2	0.4	17.2	0.1	0.6	3.6	..
■ CP 순발행	2.3	0.2	0.8	0.6	1.0	-0.1	-1.2	-0.4	19.3
■ 주식발행	13.9	0.5	10.1	0.5	4.7	0.5	0.1	0.5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19.10월중 금융시장 동향).

- 10월 은행의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에서 증가폭이 모두 늘어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19.9월 +4.8조원 → 19.10월 +7.2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전세 및 매매거래 관련 자금수요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모기지론 양도 포함 : 19.9월 +3.8조원 → 19.10월 +4.6조원)
- 기타대출도 주택 관련 자금수요와 함께 추석 연휴 소비자금 결제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19.9월 +1.0조원 → 19.10월 +2.5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7		2018		2019			19.10월말 잔액	
	연중	10월	연중	10월	연중	8월	9월		10월
은행 가계대출	58.9	6.9	60.8	7.8	46.5	7.4	4.8	7.2	874.1
■ 주택담보대출	37.2	3.3	37.8	3.5	35.2	4.6	3.8	4.6	643.1
■ 기타대출	21.6	3.5	22.6	4.2	11.4	2.8	1.0	2.5	229.8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19.10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12월 초(12.2~12.10일) 금리 하락·원화 약세

- 국고채(3년) 금리는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 지속과 미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 유지 가능성 등 대외 요인과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외국인들의 장기물 위주 국채선물 매수세 유입 등의 영향으로 인해 소폭 하락
(12.2일 1.43% → 12.10일 1.39%, 0.04%p 하락)
- 원/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협약의 지연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MSCI 지수 조정에 따른 외국인 주식 매도 및 관련 역송금 수요가 지속되면서 10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1,900원을 돌파
(12.2일, 1,183.1원 → 12.10일 1,191.3원, 8.2원 상승)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17	2018				2019			
		2/4	3/4	4/4	1/4	2/4	3/4	11월	12.10일
국고채(3년)	2.08	2.12	2.01	1.82	1.69	1.47	1.30	1.39	1.39
회사채(3년,AA-)	2.63	2.77	2.45	2.29	2.16	1.97	1.80	1.92	1.95
CD(91일)	1.64	1.65	1.65	1.93	1.90	1.78	1.55	1.53	1.53
CP(91일)	1.79	1.82	1.82	1.97	1.98	1.92	1.72	1.65	1.66
원/달러	1,088.2	1,114.5	1,109.3	1,115.7	1,135.1	1,154.7	1,196.2	1,181.2	1,191.3
원/100엔	966.5	1,014.8	981.2	1,013.2	1,028.2	1,073.4	1,113.4	1,076.9	1,095.4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증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10월중 전년동월비 -2.5%, 전월비 -1.5%

○ 제조업생산은 기타운송장비(전년동월비 20.8%)와 반도체(11.7%), 통신·방송 장비(10.8%) 등에서 상당 폭 증가함에도 전자부품(-14.4%), 자동차(-6.6%), 의료정밀광학(-20.8%) 등에서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년동월비 2.5% 감소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3.0%)에서 증가세를 유지한 데 반해, 중공업(-2.0%)에서는 감소세로 전환되고, 경공업(-4.3%)에서는 감소폭이 확대

- 전월비 기준에서도 반도체(4.9%)와 비금속광물(4.1%), 기타운송장비(1.2%) 등에서 증가한 반면, 자동차(-4.4%)와 전자부품(-7.0%), 석유정제(-9.4%)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면서 제조업 전체 기준 1.5% 감소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1.8)는 반도체와 식료품, 담배 등에서 상승한 반면, 기타운송장비와 전자부품, 자동차 등에서는 전월과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2.0% 하락, 전월비 기준으로는 0.4% 상승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5.8%로 전월비 2.4%포인트 상승, 재고출하 순환도는 출하 감소폭(-0.5% → -3.1%, 계절조정치, 전년동월비)이 크게 확대된 반면, 재고 증가폭(8.2% → 6.0%)은 축소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2%로 전월보다 2.3%p 하락

□ 서비스업생산 : 10월중 전년동월비 +0.7%, 전월비 +0.3%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전년동월비 -1.5%)와 교육(-1.2%), 운수·창고(-1.0%), 등 다수 업종에서 감소함에도 보건·사회복지(6.3%), 정보통신(6.6%),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2.9%)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0.7% 증가

- 전월비 기준으로는 도소매(-1.1%), 금융·보험(-0.8%), 부동산(-1.8%), 보건·사회복지(-0.1%) 등을 제외하고 숙박·음식점(3.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1.3%) 등에서 증가한 데 힘입어 서비스업 전체 기준 0.3% 증가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5.3% 증가, 전월비 기준 0.2% 증가

산업별 생산 동향

(2015=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17년)	2017	2018	2019						
				1/4	2/4	3/4*	8월	9월*	10월*	전월비*
광 공 업 (원지수)	10,000	104.7	106.1	100.2	106.2	104.4	101.7	102.5	109.5	-
전년동기비 증감률	-	2.4	1.3	-2.1	-0.7	-0.8	-3.3	0.4	-2.5	-1.7
제 조 업 (원지수)	9,340.4	104.6	105.9	98.9	106.6	104.5	101.3	103.0	110.3	-
전년동기비 증감률	-	2.2	1.2	-2.1	-0.8	-0.7	-3.3	0.2	-2.5	-1.5
섬 유	136.7	-3.1	-6.7	-9.0	-7.5	-3.7	-6.8	-1.5	-7.4	-2.1
화 학	831.5	3.5	2.3	-3.1	-6.1	-2.0	-3.0	-1.5	-2.0	-1.5
철 강	604.5	1.6	-3.0	-2.4	-2.1	-2.7	-6.8	-3.0	-4.6	-3.2
반도체	1,218.3	10.9	20.2	5.8	7.9	8.3	12.5	9.7	11.7	4.9
컴퓨터, 주변장치	44.5	-10.2	-7.7	2.5	-6.8	-5.7	-23.6	8.7	-4.1	-7.8
통신, 방송장비	144.7	-9.7	-7.1	-16.4	-8.4	3.1	22.3	7.9	10.8	-2.1
의료, 정밀, 광학	186.1	19.1	15.1	-8.3	-11.5	-20.5	-25.9	-22.6	-20.8	0.4
기계, 장비	835.8	13.5	-2.9	-11.4	-6.8	-1.9	-4.0	3.2	-0.5	-2.8
자동차	1,066.4	-2.7	-1.4	2.5	1.7	-0.5	-12.5	-2.9	-6.6	-4.4
조 선	221.1	-29.2	-13.5	9.6	22.2	24.2	17.6	28.2	19.5	2.2
- 중 공 업	-	2.6	2.2	-2.0	-0.8	-0.7	-2.9	0.4	-2.0	-2.0
- 경 공 업	-	0.1	-3.1	-2.3	-0.9	-1.1	-5.2	-1.1	-4.3	-4.3
- 제조업ICT	-	7.1	11.3	-2.2	0.9	1.1	2.8	3.7	3.0	3.8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4.5	106.7	104.5	108.4	107.6	108.1	106.9	108.9	-
전년동기비 증감률	-	1.9	2.1	1.1	1.4	1.6	2.4	1.0	0.7	0.3
도소매	211.3	0.7	1.5	-0.6	-0.1	0.4	1.6	-0.1	-1.5	-1.1
운수, 창고	90.3	1.6	2.1	1.2	-1.3	0.3	1.3	-0.7	-1.0	0.1
숙박 및 음식점	61.6	-1.9	-1.9	-1.3	-1.3	-2.5	-0.7	-4.5	-0.6	3.1
정보통신	79.9	1.6	1.4	3.0	3.9	3.3	2.6	3.0	6.6	1.9
금융 및 보험	140.9	5.1	5.8	1.0	1.1	4.4	5.9	2.5	-0.3	-0.8
부동산	31.8	1.2	0.2	-2.9	-1.6	0.3	1.1	0.8	-0.8	-1.8
전문, 과학 및 기술	71.0	-1.6	0.8	0.6	1.9	2.4	2.1	2.2	1.5	0.9
사업시설관리 등	47.7	4.2	0.6	-0.2	3.0	3.2	1.9	3.6	2.9	1.3
교 육	106.0	0.0	0.1	-0.8	-0.9	-0.7	-0.8	0.7	-1.2	1.0
보건 및 사회복지	94.3	6.6	5.6	8.4	9.8	5.6	5.0	5.0	6.3	-0.1
예술, 스포츠, 여가	21.7	0.2	-0.6	2.3	0.3	-0.9	2.8	-4.4	-0.4	1.8
협회, 수리, 개인	32.1	0.0	0.7	-2.2	-0.7	-2.6	0.4	-3.3	-1.9	0.5
수도, 하수, 폐기물	11.4	0.4	3.0	-1.8	-3.2	0.6	2.8	1.8	-0.4	3.9
- ICT서비스업	-	-4.3	9.7	-1.1	-4.3	9.7	4.0	3.7	5.3	0.2

자료 : 통계청.

주 : *는 잠정치.

5. 고용

□ 취업자 수 : 10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5% 증가

○ 10월 전산업 취업자는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비교적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감소폭이 축소된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확대(1.3% → 1.5%)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폭이 축소(전년동월비 -2.5% → -1.8%)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는 전월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4.2% → 3.9%)하고, SOC·기타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1.9% → 2.1%)
-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주택건설 부진으로 감소세가 확대(-1.9% → -2.5%)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는 취업자 증가세가 유지(0.3% → 0.8%)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부문은 금융및보험업(-5.0% → -6.3%)과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5.5% → -4.3%) 등에서 감소세가 이어짐에도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0% → 7.0%)과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5% → 7.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4.3% → 4.6%) 등 다수 업종에서 비교적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세도 확대(4.5% → 4.7%, 2013.11월 이후 최고치 증가율)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5%로 2개월 연속 상승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 산업	26,725	26,822	26,461	27,256	27,382	27,408	27,383	27,358	27,404	27,509
전년동기비	1.2	0.4	0.7	0.9	1.4	1.0	1.1	1.7	1.3	1.5
농림·어업	0.5	4.8	9.6	1.2	3.9	1.6	3.7	3.7	4.2	3.9
제조업	-0.4	-1.2	-3.1	-1.4	-1.7	-1.5	-2.1	-0.5	-2.5	-1.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6	0.5	1.1	1.4	1.8	1.6	1.6	2.0	1.9	2.1
건설업	6.4	2.3	-0.4	0.0	0.0	1.1	0.6	1.3	-1.9	-2.5
도소매·음식숙박업	0.6	-1.9	-0.9	0.3	0.5	0.4	0.2	0.9	0.3	0.8
전기·운수·통신·금융	-1.1	3.3	1.2	0.3	-0.8	1.1	-0.4	-1.4	-0.7	-0.7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2.1	0.7	2.6	2.7	3.9	2.5	3.3	4.0	4.5	4.7
실업률 (계절조정, %)	3.7	3.8	3.9	4.0	3.5	4.0	4.0	3.1	3.4	3.5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11월 수출 14.3% 감소, 수입 13.0% 감소, 무역수지 흑자 34억 달러

○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4.3% 감소한 441억 달러, 수입은 13.0% 감소한 40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경기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의 지속과 반도체·석유화학·석유제품 단가의 회복 지연, 대형 해양플랜트 인도 취소(7.2억 달러), 조업일수 감소(0.5일) 등의 영향으로 큰 폭 감소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

- 수입은 원유·석유제품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수입액이 대폭 감소(-24.2%)한 데다, 설비투자 감소 여파로 반도체 제조장비 등 자본재 수입도 감소하고, 그 동안 증가세를 보인 소비재 수입마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전년동월비 두 자릿수의 감소율이 지속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65.1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17.6% 하락해 있고, 도입물량도 4.7% 감소하면서 금액 기준으로 21.4% 감소한 59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1~11월
수출	5,737 (15.8)	6,049 (5.4)	1,327 (-8.5)	1,385 (-8.6)	1,348 (-12.2)	441 (-13.9)	447 (-11.7)	467 (-14.8)	441 (-14.3)	4,969 (-10.7)
수입	4,785 (17.8)	5,352 (11.9)	1,237 (-6.6)	1,288 (-3.3)	1,249 (-4.1)	425 (-4.3)	387 (-5.6)	414 (-14.6)	407 (-13.0)	4,596 (-6.4)
무역수지	952	697	89	97	99	16	60	53	34	373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2) 11월 실적은 잠정치 기준.

□ 컴퓨터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품목 수출 감소

○ 반도체 : 데이터센터 서버 투자 증가, 스마트폰 메모리 탑재 증가에 따른 반도체 물량 증가, 낸드 가격의 점진적인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D램

가격의 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

- **자동차** :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국내 기업의 브랜드 점유율 상승,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SUV와 친환경차 판매 호조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 등에 따른 대EU 수출 부진과 러시아 정부의 현지생산 유도 정책에 따른 대CIS 수출 부진 등의 여파로 전체 수출이 소폭 감소
- **자동차부품** : 아세안·중동·인도 등 신흥시장에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미국·EU·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 둔화, 국내 기업들의 유럽시장 철수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
- **선박류** : 2017년 하반기 이후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실적 회복으로 최근 선박 수출이 호조세이나, 11월 인도 예정인 대형 해양플랜트의 인도 취소(7.2억 달러), 전년대비 군함·플랜트 수출 부진 여파로 수출이 크게 감소
- **디스플레이** :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모바일폰 수요 증가로 OLED 수출은 호조세이나, LCD 단가 하락 및 출하량 감소 등으로 LCD 수출이 부진하면서 전체 수출이 감소
- **무선통신기기** : 애플의 신제품 생산 확대와 국내 기업들의 해외 공장 이전에 따른 휴대폰 부품 수출 호조에도, 글로벌 시장의 성장 둔화 및 교체주기 연장 등에 따른 휴대폰 완제품의 수출 감소 등으로 전체 수출 감소
- **철강** : 아세안 수요로 수출물량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철강 수요 정체와 중국·미국 등 주요국 생산 확대에 따른 단가의 두 자릿수 하락, EU·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방산업(자동차·건설 등) 침체에 따른 판재류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체 수출이 감소
- **섬유** : 중동·CIS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일부 국가들의 정정 불안 등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
- **석유제품** : 최근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동기비 하락한 수준이며,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내 정제설비 증설에 따른 경쟁 심화, 정기보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

- **석유화학** : 국내 신증설 설비 정상 가동과 정기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수요 부진, 중국 등 역내 공급 증가, 자동차 등 전방산업 둔화 지속 등으로 수출이 감소
- **일반기계** : 중국 건설기계 시장 둔화 및 로컬업체들과의 가격 경쟁 심화, 미국내 신규 투자 감소, 인도에서의 국내 기업들의 현지투자 마무리 단계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
- **가 전** :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주요 시장에서의 쇼핑 행사 확대 및 우리 제품에 대한 해외평가 향상에도 불구하고, TV 등 주요 품목에서 중국·일본 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전체 수출은 감소
- **컴퓨터** : 서버 및 PC 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낸드(NAND) 공급 초과율 축소에 따른 단가 하락세 진정 등으로 컴퓨터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SSD 수출의 호조, 미국 추수감사절 등 성수기에 따른 노트북·태블릿 PC 등 휴대용 컴퓨터 증가 등의 영향에 힘입어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1~11월
자동차	3.8	-1.9	4.7	8.9	10.3	4.6	3.9	-2.3	-1.4	5.9
자동차부품	-9.5	-0.1	3.0	-7.2	-0.7	-5.3	1.9	-6.6	-9.4	-3.0
선박류	23.1	-49.6	-24.6	49.2	39.1	168.0	30.8	25.7	-62.1	4.2
일반기계	11.4	10.2	0.5	0.5	-4.5	-6.6	-1.7	-12.2	-1.5	-2.3
철 강	20.0	-0.7	-1.8	-8.1	-17.6	-19.9	-9.3	-12.3	-8.7	-9.7
석유화학	23.5	11.9	-10.3	-15.9	-16.8	-19.6	-18.5	-22.6	-19.0	-15.6
석유제품	32.0	32.3	-4.2	-13.0	-14.2	-16.2	-16.6	-26.4	-11.9	-12.6
섬 유	-0.5	2.5	-7.0	-8.5	-8.6	-13.2	-5.9	-6.8	-12.3	-8.3
가 전	-22.1	-18.3	-6.1	-2.3	-1.4	-7.1	0.3	-6.5	-6.9	-4.0
무선통신기기	-25.5	-22.7	-27.2	-21.0	-17.0	-18.9	0.6	-6.7	-2.9	-18.7
컴퓨터	9.5	17.2	-33.7	-36.5	-24.8	-31.8	-18.6	7.7	23.5	-24.2
반도체	57.4	29.4	-21.4	-23.6	-30.3	-30.7	-31.6	-32.1	-30.8	-26.5
디스플레이	9.0	-9.9	-11.6	-13.8	-19.9	-23.7	-17.2	-22.5	-23.4	-17.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 11월 실적은 잠정치 기준.

부 록	2019년 수출입 평가 및 2020년 전망
------------	--------------------------------

국제무역연구원(2019.11.29일)

□ 2019년 수출입 동향

- 2019년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대비 10.2% 감소한 5,430억 달러, 수입은 5.5% 감소한 5,06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70억 달러 흑자로 예상

□ 수출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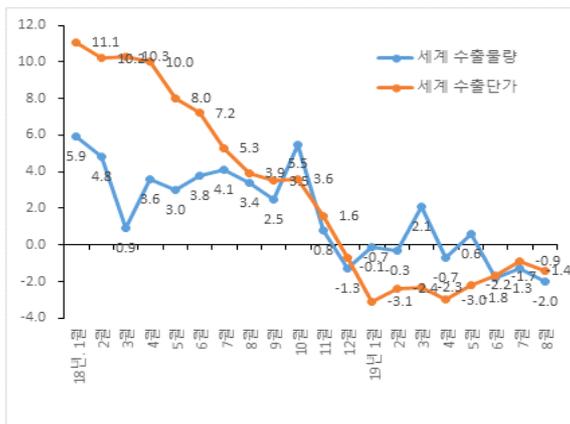
- 2019년 우리나라 수출입은 글로벌 경기 및 교역 부진과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부진
 - 반도체 가격과 국제유가의 하락 영향으로 반도체와 석유 관련 제품이 2019년 전체 수출 감소의 70% 이상을 차지
 - 수출 물량 증가세의 지속, 미래 수출동력 품목의 수출 증가,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 확대 등 질적 측면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성과

<주요국 수출 동향(2019년 1~8월)>

순위	국가	수출액 (억달러)	증감률 (%)
1	중국	16,070	0.4
2	미국	10,957	-0.9
3	독일	9,960	-5.7
4	일본	4,662	-4.9
5	네덜란드	4,660	-2.7
6	프랑스	3,804	-1.5
7	한국	3,614	-9.6
8	이탈리아	3,527	-3.6
9	홍콩	3,467	-7.0
10	영국	3,081	-6.1

자료 : WTO.
주 : 증감률은 전년동기비 기준.

<세계 수출 물량 및 단가 변동률>



자료 :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
주 : 상품 기준.

□ 2020년 무역·통상환경 전망

- (세계경제 성장) 올해 세계경제는 제조업 위축과 무역갈등 및 지정학적 긴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지만, 2020년에는 남미·중동과 유럽의 신흥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제성장률이 3.4%로 소폭 개선될 전망(IMF, '19.10)

- (환 율) 2020년 원화는 달러 대비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2019년 수준 예상
- (유 가) 2020년 국제유가(Dubai유 기준)는 2019년 대비 소폭 하락한 배럴 당 60달러 초반 수준 전망(Bloomberg)
- (무역체제의 전환) WTO 다자(multilateral)무역체제 동력이 상실되고, 지역 무역협정과 분야별 복수국간 협정이 중첩되는 ‘다층(multi-layered) 무역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미·중 갈등과 국가별 보호무역 조치는 지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

□ 2020년 수출입 전망

- 2020년 수출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5,610억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5,220억 달러, 무역수지는 390억 달러 흑자 전망
- 품목별로는 반도체 단가 회복으로 반도체와 컴퓨터 수출이 증가하고, 미국의 자동차 수요 증가로 자동차 및 부품의 수출이 개선될 전망
 - 반면에 석유 관련 제품은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으로 2019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 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 등은 해외생산 확대 및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전년대비 감소세가 예상

□ 결론 및 시사점

- 2020년 수출액과 무역액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반도체 단가 회복 등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 및 가계소비의 지연 가능성 등 수출 불안 요인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대외 무역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수출시장 다변화 및 품목의 고도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12.9)	(12.10)	(12.11)	(12.12)	(1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분기 실질GDP (수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소비자물가 ● 연준FOMC(12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소비자물가 ● 11월 고용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기계수주 ● 10월 산업생산 ● ECB 통화정책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소매판매(수) ● 10월 산업생산(수) ● 11월 소매판매
(12.16)	(12.17)	(12.18)	(12.19)	(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산업생산 ● 11월 소매판매 ● 11월 고정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수출입통계 ● 11월 산업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무역수지(잠) ● 11월 소비자물가(수) ● BOJ 통화정책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경기선행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소비자물가 ● 193분기 실질GDP (수정치) ● 11월 개인소비 ● 11월 생산자물가
(12.23)	(12.24)	(12.25)	(12.26)	(1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경기선행지수 (수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내구재수주(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무역수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소매판매(잠) ● 11월 산업생산(잠) ● 11월 실업률 ● 12월 소비자신뢰지수
(12.30)	(12.31)	(1.1)	(1.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산업활동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소비자신뢰지수 ●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 ● 12월 소비자물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수출입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ISM 제조업지수



© Happy New Year 2019 WhatsApp Images (<https://happynewyear2020imagess.com/>)